

07 2028 대입 · 고 교 학 점 제

고교학점제 — 192학점과 졸업 요건

출석만으로는 안 됩니다

- ◆ 이 자료는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 ◆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CONTENTS

01 먼저 사실부터	2
02 학점을 어떻게 얻나	3
03 무엇이 실제로 바뀌나	4
04 그래서 무엇을	5
05 자주 묻는 것	6

무엇이 들어 있나

- ◆ 192학점의 구성 — 필수 84 · 자율 90 · 창의적 체험활동 18
- ◆ 학점이 나오는 두 요건 — 출석 3분의 2와 성취율 40%
- ◆ 성취도 A~E와 학점 — 40% 미만이면 어떻게 되는가
- ◆ 수강신청 기한과 학년별로 할 일 · 확인하실 여덟 가지

01 · 먼저 사실부터

졸업이 학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고등학교 졸업은 「출석 일수」로 정해졌습니다. 2025년부터는 **학점**입니다. **3년간 192학점**을 채워야 졸업입니다. 대학과 같은 방식입니다.

무엇을	학점	어떻게 채우나
교과 — 필수이수	84	국어·수학·영어 등 반드시
교과 — 자율이수	90	골라서 듣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18	자율·동아리·진로
합계	192	3년간

둘째 줄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90학점은 학생이 골라서 채웁니다. 학교가 시간표를 다 정해 주던 시절과 가장 크게 달라진 자리입니다.

1학점은 한 학기 16회 수업입니다. 한 학기에 **약 32학점**쯤을 듣게 됩니다.

출처: 교육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2025학년도 1학년**부터 적용. 학점 배분은 교육과정 편성 예시이며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02 · 학점을 어떻게 얻나

출석과 성취율, 둘 다

수업에 들어갔다고 학점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두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요건	기준
과목 출석률	실제 운영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
학업 성취율	학업 성취율 40% 이상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하나만 채워서는 학점이 안 나옵니다.

성취율 40%가 무슨 뜻인가

성취도	성취율	학점
A	90% 이상	나옵니다
B	80~90%	나옵니다
C	70~80%	나옵니다
D	60~70%	나옵니다
E	40~60%	나옵니다
—	40% 미만	안 나옵니다

E까지는 학점이 나옵니다. 40%에 못 미치면 못 받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보충 과정을 마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 편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처: 교육부 2024 「2025학년도 이후 학점이수 인정기준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계획 안내」, 시도교육청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안내자료(2025). 체육·음악·미술은 3단계(A·B·C)로 평가합니다.

03 · 무엇이 실제로 바뀌나

고르는 일이 생겼습니다

	예전	고교학점제
시간표	학교가 다 정합니다	일부는 학생이 고릅니다
반	같은 반이 같이 다닙니다	과목마다 구성이 달라집니다
졸업	출석 일수	학점 192
낙제	사실상 없었습니다	과목 미이수가 생깁니다

맨 아랫줄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성적이 아무리 낮아도 출석만 하면 졸업이었습니다. 이제는 과목마다 최소한을 넘겨야 합니다.

수강신청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과목은 아무 때나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 과목은 10월 말 최종 확인서로 확정, 변경은 그 학년 종업식 전까지 이 날짜를 놓치면 원하는 과목을 못 들립니다. 학교마다 일정이 다르니 가정통신문을 꼭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반」의 뜻이 달라집니다

과목마다 듣는 학생이 달라지니 담임이 아이의 모든 수업을 보지 못합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부모님께 닿는 경로가 예전보다 성깁니다.

그래서 학생부와 성적표를 학기마다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출처: 교육부 고교학점제 운영 안내. 수강신청 일정과 운영 방식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04 · 그래서 무엇을

학년별로 할 일과 점검표

시기	무엇을
고1 봄	공통과목을 제대로 — 뒤 과목의 바탕입니다
고1 가을	진로를 좁히고 2학년 과목을 봅니다
고1 10월	수강신청 확인서 — 놓치면 못 바꿉니다
학기마다	성취도와 이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맨 아랫줄을 특히 부탁드립니다. 미이수는 학기가 끝난 뒤에 알게 되면 늦습니다. 학기 중에 알면 보충할 시간이 있습니다.

확인하실 여덟 가지

☐ 우리 아이가 **고교학점제 적용** 인가 (2025학년도 1학년부터)

☐ 졸업에 **192학점** 이 필요한 것을 아는가

☐ 그중 **90학점**을 골라서 채우는 것을 아는가

☐ 학점에 **출석과 성취율** 두 요건이 있는 것을 아는가

☐ **성취율 40%** 기준을 아는가

☐ **수강신청 기한** 을 학교에 확인했는가

☐ 학기마다 **이수 여부를 확인** 하고 있는가

☐ 과목을 **진로로** 고르고 있는가

여섯째가 실무적으로 가장 자주 놓치는 자리입니다. **확인서에 서명하고 나면 그 학년 종업식 전까지만 바꿀 수 있습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고교학점제를 「과목을 잘 골라야 하는 제도」로만 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이 제도의 무게 중심은 「고르는 것」보다 「채우는 것」에 있습니다. 192학점을 채우는 것, 과목마다 최소한을 넘기는 것, 고르기 전에 채울 수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감당 못 할 과목을 고르는 것이 안 고르는 것보다 나쁩니다.

05 · 자주 묻는 것

고교학점제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192학점을 못 채우면 유급인가요?

졸업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학교는 192학점보다 넉넉하게 시간표를 짭니다. 한 과목을 못 채워도 **총량으로는 여유가 있게**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미이수가 나면 보충 기회가 주어집니다. 학교가 먼저 찾아내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못 채우면 유급」이라는 말로 아이를 겁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학기마다 확인은 하십시오 —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문제이지 제도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Q. 과목을 잘못 골랐으면 어떻게 하나요?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확인서 제출 전이면 자유롭게 바꿉니다. **제출 뒤에도 그 학년 종업식 전까지**는 변경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학교 사정으로 못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 분반이 이미 짜였거나 정원이 찼을 때입니다.

학기가 시작된 뒤에는 대체로 어렵습니다. 그때는 **그 과목을 끝까지 가는 쪽으로** 봅니다.

그래서 **고르기 전에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 그 과목의 **선수 과목**을 들었는가, **주당 시수가 얼마인가**, **평가 방식**이 무엇인가. 이름만 보고 고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한 줄로 남기면

졸업은 **3년 192학점**이고, 학점은 **출석 3분의 2와 성취율 40%**를 둘 다 채워야 나옵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교육부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학점 배분·수강신청 일정·변경 절차는 학교마다 다릅니다.**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과 가정통신문을 확인하십시오.